

직장 남성의 춘추용 드레스 셔츠 착용 실태 및 소재 선호도

김 경 희 · 최 종 명[†]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패션디자인정보학과

The Wearing Practices and Subjective Fabrics Preferences for Spring and Fall Dress Shirts of Male Office Workers

Kyung-Hee Kim and Jong-Myoung Choi[†]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06. 1. 4. 접수: 2006. 3. 4. 채택)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the wearing practices and the subjective fabrics preferences for men's dress shirts. It was performed by means of convenience sampling survey of male office workers wearing dress shirts who were living in Seoul, Geonggi, and Chungcheong area.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t*-test, and ANOVA using SP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Most of the male office workers owned 5 dress shirts, and blue color dress shirts were preferred to white one. It was shown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wore dress shirts at the office almost every day with necktie. The preferred sensations of the dress shirt fabrics were the soft, wrinkle-free, smooth and dry ones. There were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of male office workers in the wearing practices and subjective fabrics preferences of dress shirts.

Key words: male office workers(직장남성), dress shirts(드레스 셔츠), wearing practices(착용 실태), subjective fabrics preferences(소재 선호도).

I. 서 론

의복은 착용자의 성격이나 가치관 등을 표현해 주는 심리적 측면의 역할과 사회 생활에서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사회적 측면의 역할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사회 생활을 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의복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으로 직업에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의 수단으로 작용하

고 있다^{1,2)}. 또한 의복은 그 시대의 생활 양식의 표현 또는 한 시대의 거울이라고 불릴 만큼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요인을 반영하는 상징적 표현 문화로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그런데 오랫동안 남성복은 뚜렷한 의복 규범 속에서 스타일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착용되는 의복 유형도 몇 가지로 제한되어 의복을 포함한 패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모두가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

[†] 교신저자 E-mail : jmchoi@cbnu.ac.kr

1) M. J. Horn and L. M. Gurel.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p. 195.

2) 임정은, 이명희, "직장남성의 성격특성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와의 관계연구," 복식문화연구 7 권 5호 (1999), p. 753.

으나³⁾, 오늘날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남성들의 상품 구매 행동도 변화하여 과거와는 달리 상품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생활 용품 전반에 걸쳐 관심을 보이는 적극적 구매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⁴⁾. 따라서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쇼핑과 패션에 대한 관심과 추종이 남성들에 있어서도 일반화되고 있으며⁵⁾, 토요일 휴무제, 전문직 종사자들의 근무복 착용 패턴 변화와 재택 근무자의 증가, 스포츠와 레저 문화의 보급 등 남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는 패션 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⁶⁾.

드레스 셔츠는 중세 시대 이래로 상반신의 속옷 또는 중의로 착용되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칼라와 커프스가 있고 앞여밈이 있는 상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이트 드레스 셔츠는 정결과 지적인 행동력을 상징하는 반면, 블루 칼라는 육체적 활동을 하는 직업을 상징하여 왔다. 즉 드레스 셔츠는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라는 대립으로 사회적인 상징성을 포함하여 현대 비즈니스를 상징하게 되었다⁷⁾.

최근 라이프스타일 및 패션 의식의 변화에 따라 남성의 드레스 셔츠를 포함한 남성복의 색상과 디자인 및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패션계의 분위기 속에서 남성복에서도 소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며, 구매 시점보다 구매 후 평가 즉 착용 과정에서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의 춘추용 드레스 셔츠의 소유 및 착용 실태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드레스 셔츠 소재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을 조사함으로써 드레스 셔츠의 시장 세분화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드레스 셔츠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남성 소비자의 의복 행동

기존의 남성 소비자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쇼핑에 대한 인식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남성들은 수동적인 소비자라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상품을 찾고 이를 소비하는 적극적인 의사 결정권자들이 되었다. 이제까지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쇼핑과 패션에 대한 관심과 추종이 남성들에 있어서도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⁸⁾.

남성 소비자들은 의복을 사회적 지위와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 소비자와 다르게 개성과 외모 향상을 추구할지라도 쾌락적 쇼핑과 계획적 쇼핑이 같이 나타나서 가격에 민감하고 충동적 구매를 하지 않으며 신중하게 구매한다고 보고하였다⁹⁾. 즉 남성 소비자는 반드시 의류 구매를 목적으로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쇼핑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하나의 정보로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성향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¹⁰⁾.

직장 남성들은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하게 되는 주된 동기는 편안함과 다른 의복과의 조화, 그리고 그날의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의복 선택 동기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연령, 학력, 결혼 유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¹¹⁾. 또한 성인 남성은 정장 선택시 디자인과 가격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¹²⁾, 슈트를 구매할 경우 평가 기준으로는 색상, 스

- 3) 유정하, 이순홍, "남성복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85년 이후 국내 남성복을 중심으로," 복식 29호 (1996), p. 5.
- 4) 김관주, 홍금희, "다상품군에서의 혁신성과 의견 선도력의 중복 성향: 남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0권 4호 (1996), pp. 620-630.
- 5) 김주희, 박옥련, "남성소비자의 패션의식에 따른 쇼핑행동연구: 구매행동, 쇼핑성향, 정보원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권 1호 (2005), pp. 167-178.
- 6) 신수연, 김용덕, "20, 30대 성인남성의 캐주얼 의류 쇼핑 성향과 자기 이미지 및 점포 속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2호 (2000), p. 306.
- 7) 오희선,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2000), pp. 273-275.
- 8) 김주희, 박옥련, *Op. cit.*, p. 167.
- 9) 김지현, 홍금희, "남성 집단의 의복추구 행태에 따른 소비성향과 정보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권 1호 (2000), p. 53.
- 10) 김주희, 박옥련, *Op. cit.*, p. 173.
- 11) 이명희, 한화숙, "남성의 라이프스타일과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에 관한 연구," 복식 28호 (1996), pp. 137-150.

타일과 가격을 중요시하고 있으며¹³⁾, 정상 구매시 중요시 여기는 점포 속성은 분위기 및 서비스 요인이었고, 색상, 이미지, 디자인, 가격, 사이즈, 재질감 등의 순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한편, 남성 소비자들은 드레스 셔츠의 색상과 디자인을 중요시하고, 드레스 셔츠 구매 전 정보 탐색에 있어서 소재, 실용성, 조화, 상표, 가격 중에서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2. 소재 선호도

최근 소비자의 요구가 개성화, 기능화, 다양화됨에 따라 패션 상품의 차별화 수단으로 소재가 중요시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셔츠를 포함한 의류 제품 구매시 중요시하는 평가 기준으로는 구체적인 의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스타일, 외관, 봉제 상태, 맞춤새, 색채/무늬의 순이었고, 구체적인 의복을 고려한 경우에는 스타일, 색채/무늬, 맞춤새, 직물, 외관의 순이어서 구체적인 의복 품목에서는 소재가 의복 평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¹⁶⁾,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을 학기 등하교용 재킷이나 점퍼 구매시 평가 기준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물리적 속성, 타인 의식, 자기 만족, 적합성 등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소재는 물리적 속성에 포함되었고 소재와 다른 평가 요인의 상관 관계로 소재 개념의 다차원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¹⁷⁾.

또한 한국과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성 정장용 소재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국적과 연령에

따른 소재 선호도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¹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계절별 셔츠 소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소재의 색상과 질감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고 계절에 따라 선호하는 섬유와 조직은 다소 차이를 보이나¹⁹⁾, 봄·가을용 슬랙스로는 면 직물을, 여름용 슬랙스로는 린넨 평직물을 가장 선호하였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얇은 직물을 선호한다고 하였다²⁰⁾. 그리고 춘추용 블라우스/셔츠 소재의 태 언어 도출 및 평가에서 직물의 촉감 평가시 가장 상관 관계가 높은 요인은 표면 요철감, 드레이프성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드레이프성이 좋은 것과 같은 소재가 좋은 촉감의 소재라고 하였고, 블라우스 소재로는 매끄럽고 드레이프성이 좋은, 즉 촉감이 좋은 견 소재가 가장 선호되었으며, 셔츠 소재로는 드레이프성이 좋지 않고 부피감과 밀도감이 있는 면 소재가 선호되었다고 하였다²¹⁾. 또한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에 대한 선호 감각은 성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남자 대학생은 부드러우면서도 목신한 촉감과 광택이 있는 셔츠 소재를 더 선호하였고, 여자 대학생은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촉감과 촘촘하면서 보송보송한 특성을 가진 셔츠 소재를 더 선호하였다²²⁾.

한편, 의복 추구 이미지와 소재 선호의 내용을 각각 분석하고 소재 선호가 추구 이미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대생들이 가장 추구하는 의복 이미지는 깔끔한 이미지, 자연스러운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였으며, 가장 선호하는 재질감은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송보송한 것이었다고 보고하기도

12) 박진영, 손희순, "성인 남성의 신사복 구매행동과 맞춤새에 관한 조사 연구," *복식문화연구* 9권 1호 (2001), pp. 45-60.
 13) 최혜숙, 손희순, "성인 남성의 수트 구매실태 조사," *복식문화연구* 8권 3호 (2000), pp. 339-348.
 14) 김민정, 임숙자, 이숙희, "남성 정장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권 2호 (2004), pp. 320-331.
 15) 현병희, "남성 로얄셔츠의 구매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16) M. Eckman, M. L. Damhorst, and S. J. Kadolph, "Toward a Model of the in-Store Purchase Decision Process: Consumer Use of Criteria for Evaluation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8(2) (1990), pp. 13-22.
 17) 장인희, "의류제품 구매시 소재의 영향과 소비자 선호구조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6권 1호 (2002), pp. 83-94.
 18) 안춘순, 이승희, 양 윤, 임숙자, S. J. Lennon, S. M. Parker, "한국과 미국의 여성 정장용 소재에 대한 한미 소비자 선호도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권 2호 (2001), pp. 217-227.
 19) 김희숙, 나미희, "대학생 셔츠용 소재에 대한 선호도 조사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권 제3호 (2002), pp. 263-272.
 20) 김희숙, 나미희, "슬랙스용 소재에 대한 대학생의 선호도 조사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권 4호 (2002), pp. 381-389.
 21) 이미식, 김은애, 김준권, 유효선, "춘추용 블라우스 소재의 태 언어 도출 및 평가," *한국섬유공학회지* 39권 1호 (2002), pp. 125-132.
 22) 최종명, "셔츠의 착용실태와 소재에 대한 주관적 선호감각," *태한가정학회지* 43권 1호 (2005), p. 175.

하였다²³⁾.

이처럼 패션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소재에 따라 의류 제품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세분화된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소재에 대한 감성과 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직장 남성의 드레스 셔츠 소유 및 착용 실태를 파악하고, 결혼 여부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직장 남성의 드레스 셔츠의 소재에 대한 선호감각을 파악하고, 결혼 여부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2.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드레스 셔츠를 주로 착용한다고 생각되는 20~40대 사무직에 근무하는 성인 남성 371명을 편의 표집하였으며, 2004년 4월말부터 한 달 동안 직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분포를 보면 경기도 37.5%, 서울 34.5%, 충청도 28.0%이었으며, 연령층은 30대가 60.9%로 가장 많았고 40대 25.9%, 20대 13.2%의 순이었다. 학력을 보면 대졸 50.4%, 대학원졸 28.6%, 초대졸 10.85%, 고졸 10.2%의 순으로 나타나서 대학 졸업(2년제 포함)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89.8%이었다. 또한 기혼의 비율이 72.5%로 미혼인 경우(27.5%)보다 높았으며, 월 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3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5.9%, 200만원 미만 24.2%이었으며, 월평균 의복 구입비는 10만원 미만이 55.7

%로 과반수 이상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는 10~20만원 미만이 34.6%이었다.

3. 측정 도구

측정 도구는 선행 연구²⁴⁻²⁷⁾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선다형의 인구통계학적 7문항, 선다형과 기입형의 드레스 셔츠 소유 및 착용 실태 12문항, 그리고 7점 리커트형의 드레스 셔츠 소재 선호도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드레스 셔츠 소재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정한 14감각에 대해서는 7점 양극 척도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즉 선호하는 감각이 왼쪽의 단어에 가까우면 1에 가깝게, 오른쪽의 단어에 가까우면 7에 가깝게, 중간이면 4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4보다 작으면 왼쪽의 단어에 가까운 감각을 선호하는 것이고, 4보다 크면 오른쪽의 단어에 가까운 감각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자료 분석

조사된 자료는 SPSS/WIN 10.0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드레스 셔츠 소유 및 착용 실태 문항은 빈도 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소재 선호도 문항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결혼 여부와 연령에 따른 드레스 셔츠 소유와 착용 실태 및 소재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χ^2 -test,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LSD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고찰

1. 드레스 셔츠의 소유 실태

1) 드레스 셔츠 소유 수

직장 남성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춘추용 드레스 셔츠의 소유 수를 조사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1>과

23) 정인희, "여자 대학생의 의복추구 이미지와 소재 선호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권 4호 (2001), pp. 629-638.

24) 최중명, *Op. cit.*, pp. 167-176.

25) 김의경, 이미지식 "의류소재의 주관적인 태평가용어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호 (2003), pp. 101-112.

26) 정인희, *Op. cit.*, pp. 83-94.

27) 이미지식, 김은애, 김종준, 유효선, *Op. cit.*, pp. 125-132.

〈표 1〉 드레스 셔츠의 소유 수

구 분		빈 도(%)
소유수	1~2장	27(7.4)
	3~4장	78(21.4)
	5~6장	117(32.0)
	7~8장	40(10.9)
	9~10장	76(20.8)
	11~15장	13(3.5)
	16~20장	9(2.5)
	20~25장	2(0.5)
	합계	365(100.0)

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인 20~40대 성인 남성은 춘추용 드레스 셔츠를 5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1.1%)이 있는 반면 25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0.5%)도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1~5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53.7%이었고, 6~10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9.7%, 11~15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6%, 16장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로 나타나서 파반수 정도가 춘추용 드레스 셔츠를 5장 미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 및 연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드레스 셔츠의 수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혼 남성은 평균 6.9장의 드레스 셔츠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미혼 남성은 평균 5.9장의 드레스 셔츠를 소유하고 있어서 소유 드레스 셔츠의 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또한 연령대별 소유수를 비교하여 본 결과, 40대는 평균 7.2장, 30대는 6.7장, 20대는 5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p<.01$).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은 수의 드레스 셔츠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유한 드레스 셔츠의 색상과 무늬

직장인 남성들은 단색 셔츠와 무늬 있는 셔츠를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단색의 드레스 셔츠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221명으로 전체의 60.2%를 나타내었고, 무늬 있는 드레스 셔츠를 더 많이 소유한 경우는 20.2%, 단색과 무늬가 있는 것 반반씩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19.6%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따라서 조사 대상의 파반수 이상은 단색의 드레스 셔츠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단색의 드레스 셔츠 중에서 유색 드레스 셔츠(74.0%)를 흰색 드레스 셔츠(26.0%)보다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드레스 셔츠는 화이트 셔츠라고 불릴 만큼 유니폼적인 성격이 강하여 남성들을 대표하는 옷차림은 흰색 드레스 셔츠를 입은 깨끗한 회사원의 이미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의 자유로운 사회분위 속에서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장 남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드레스 셔츠의 색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색상에 대하여 소유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파란색 계열의 색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7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흰색(60.1%), 회색 계열(44.6%), 갈색 계열(28.0%)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노란색 계열의 셔츠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드레스 셔츠의 색상 중에서 가장 많은 색상과 두 번째로 많은 색상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파란색 계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흰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

〈표 2〉 결혼 여부 및 연령대에 따른 소유 수

구 분	결혼 여부			연령대			
	기혼	미혼	F값	20대	30대	40대	F값
소유 수	6.9	5.9	1.94 *	5.0 a	6.7 b	7.2 c	5.23 **

* $p<.05$, ** $p<.01$.

abc : LSD 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은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함.

〈표 5〉 드레스 셔츠의 착용 실태

구 분		빈 도(%)
착용 용도	직장근무용	235(63.3)
	의례용	136(36.7)
	합 계	371(100.0)
착용 빈도	거의 매일	230(62.0)
	주 1~2회	51(13.7)
	월 1~2회	55(14.8)
	년 1~2회	35(9.5)
	합 계	371(100.0)
넥타이 착용 빈도	항상 착용	223(60.3)
	자주 착용	67(18.1)
	가끔 착용	63(17.0)
	착용하지 않음	17(4.6)
	합 계	370(100.0)
셔츠 안에 속옷 착용 유부	입음	310(84.2)
	입지 않음	58(15.8)
	합 계	368(100.0)
셔츠 위에 겉옷 착용 유부	입음	284(77.4)
	입지 않음	83(22.6)
	합 계	367(100.0)

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드레스 셔츠 착용 실태

1) 착용 실태

직장 남성의 춘추용 드레스 셔츠 착용 실태를 조사하여 〈표 5〉에 나타내었다. 드레스 셔츠 착용 용도를 살펴보면 직장 근무용이 63.3%로 나타나서 의례용(36.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드레스 셔츠의 착용 횟수는 거의 매일 입는 사람이 전체의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 1~2회(13.7%), 월 1~2회(14.8%), 년 1~2회(9.5%) 순으로 나타났다.

춘추용 드레스 셔츠를 착용할 때 넥타이를 항상 착용한다고 한 사람이 60.3%로 과반수를 넘었고, 자주 착용한다고 한 사람은 18.1%, 가끔 착용한다고 한 사람이 17.0%,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

도 4.6%로 나타났다.

또한 드레스 셔츠 안에 속옷을 입는 사람은 84.2%로 나타나서 입지 않는 사람(15.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으며, 드레스 셔츠 위에 겉옷을 입는 사람(77.4%)이 입지 않는 사람(2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춘추용 드레스 셔츠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서늘한 기온 때문에 보호적인 측면에서 겉옷을 착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20세기 이후 겉옷으로 착용하는 캐주얼 셔츠에 비해 드레스 셔츠는 현재까지도 의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성인 남성들은 춘추용 드레스 셔츠를 주로 직장 근무용으로 거의 매일 착용하고 있는데, 넥타이를 함께 착용하고 셔츠위에 겉옷을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무직 남성들이 봄·가을에 드레스 셔츠 안과 겉에 어떠한 옷을 착용하고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드레스 셔츠 안에 착용하는 옷으로는 대다수 내의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는데, 민소매 내의를 입는 사람(64.9%)이 짧은 소매 내의를 입는 사람(18.8%)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윗 단추를 열어서 티셔츠가 보이도록 입는 캐주얼 셔츠와는 달리 대부분 넥타이와 함께 착용하는 드레스 셔츠 특유의 정장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표 6〉 드레스 셔츠 안과 겉에 착용하는 옷

구 분		빈도(%)
셔츠 안에 착용하는 옷* (n=368)	민소매 내의	239(64.9)
	짧은 소매 내의	69(18.8)
	티셔츠	23(6.3)
	기 타	35(9.8)
셔츠 위에 착용하는 옷* (n=368)	조끼	66(17.9)
	니트	27(7.3)
	양복상의	232(63.0)
	점퍼	33(9.0)
기 타	3(0.8)	

* 다중 응답한 결과임.

〈표 3〉 드레스 셔츠의 소유 색상

구 분		빈 도(%)
무늬 유무	단색 셔츠 많음	221(60.2)
	무늬 셔츠 많음	74(20.2)
	단색/무늬 반반	72(19.6)
	합 계	367(100.0)
흰색/유색	흰색 셔츠 많음	95(26.0)
	유색 셔츠 많음	271(74.0)
	합 계	366(100.0)
소재 색상 (중복 응답 가능)	흰색	221(60.1)
	노란(주황)색 계열	32(8.7)
	초록(연두)색 계열	69(18.8)
	파란(하늘)색 계열	260(70.8)
	보라색 계열	62(16.8)
	빨간(핑크)색 계열	48(13.0)
	갈색(베이지) 계열	103(28.0)
	회색 계열	164(44.6)
	검정	3(0.8)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색	흰색	118(33.2)
	노란(주황)색 계열	9(2.6)
	초록(연두)색 계열	11(3.1)
	파란(하늘)색 계열	135(38.0)
	보라색 계열	6(1.7)
	빨간(핑크)색 계열	4(1.1)
	갈색(베이지) 계열	23(6.5)
	회색 계열	49(13.8)
	합 계	355(100.0)
두 번째로 많이 소유하고 있는 색	흰색	72(22.5)
	노란(주황)색 계열	8(2.5)
	초록(연두)색 계열	23(7.2)
	파란(하늘)색 계열	81(25.3)
	보라색 계열	19(5.9)
	빨간(핑크)색 계열	11(3.5)
	갈색 계열	41(12.8)
	회색 계열	65(20.3)
	합 계	320(100.0)

자가사무직 남성임을 고려할 때 육체적인 노동자를 상징한 20세기의 블루 칼라 셔츠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소유한 드레스 셔츠 색상은 결혼 여부 및 연령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 여부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표 4〉 참조, 연령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흰색, 노란색 계열, 초록색 계열, 파란색 계열, 보라색 계열, 빨간색 계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갈색 계열과 회색 계열의 소유 여부는 결혼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5, p<.01$). 다시 말하면 기혼 남성은 미혼 남성보다 갈색 계열과 회색 계열의 드레스 셔츠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 남성이 명도가 낮은 갈색 계열과 회색 계열을 선호하는 것은 미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미혼 남성에 비해 기혼 남성은 튀지 않는 색상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또한 갈색 계열과 회색 계열은 더러움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실용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서 기혼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의복의 실용성을 더욱 중요시하였다는 결과²⁸⁾와 일치하

〈표 4〉 결혼 여부와 색상별 드레스 셔츠 소유빈도 빈도(%)

색 상	기혼 (n=269)	미혼 (n=102)	χ^2
흰색	164(61.4)*	57(56.4)	0.76(N.S)
노란색 계열	25(9.4)	7(6.9)	0.54(N.S)
초록색 계열	56(21.1)	13(12.9)	3.21(N.S)
파란색 계열	185(69.5)	75(74.3)	0.78(N.S)
보라색 계열	46(17.2)	16(15.8)	0.10(N.S)
빨간색 계열	37(13.9)	11(10.9)	0.56(N.S)
갈색 계열	83(31.1)	20(19.8)	4.63($p<.05$)
회색 계열	129(48.3)	35(34.7)	5.53($p<.01$)

* 각 색상별 소유빈도(%)의 수치이며, 결혼과 소유 여부에 따라 각 색상별 χ^2 값을 산출한 것임.

28) 김지현, 홍금희, *Op. cit.*, p. 44.

드레스 셔츠 위에 착용하는 옷을 살펴보면 대다수 양복 상의(63.0%)를 착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끼(17.9%), 점퍼(9.0%), 니트(7.3%)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드레스 셔츠 위에 양복 상의를 착용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결과는 앞에서 넥타이를 착용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결혼 여부와 연령에 따른 착용 실태

직장인 남성의 결혼 여부와 연령대에 따라 드레스 셔츠의 착용 실태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표 7> 참조,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드레스 셔츠의 착용 용도는 기혼 남성과 미혼 남성 모두 직장근무용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의례용으로 착용하는 경우보다 더 많았지만, 기혼 남성이 직장 근무복으로 드레스 셔츠를 착용하는 경

우가 미혼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그러나 착용 횟수, 넥타이 착용 유무는 결혼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드레스 셔츠 소재에 대한 선호도

1) 소재에 대한 선호도

춘추용 드레스 셔츠의 소재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정된 14감각에 대한 7점 양극 척도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양극 척도이므로 선호하는 감각을 비교하기 위해서 중간 값을 0으로 변환하여 왼쪽의 형용사를 '-'로, 오른쪽의 형용사를 '+'로 계산한 결과를 <표 8>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거칠다-매끄럽다'는 평균 5.08이므로

<표 7> 결혼 여부에 따른 드레스 셔츠 착용 실태 빈도(%)

구분		기혼	미혼	χ^2
착용 용도	직장근무용	179(66.5)	56(54.9)	4.31*
	의례용	90(33.5)	46(45.1)	
	합 계	269(100.0)	102(100.0)	
착용 횟수	거의 매일	177(65.8)	53(52.0)	6.88 (N.S)
	주 1~2회	35(13.0)	16(15.7)	
	월 1~2회	34(12.6)	21(20.6)	
	년 1~2회	23(8.6)	12(11.7)	
	합 계	269(100.0)	102(100.0)	
넥타이 착용 유무	항상 착용한다	171(63.8)	52(51.0)	7.17 (N.S)
	자주 착용한다	48(17.9)	19(18.6)	
	가끔 착용한다	38(14.2)	25(24.5)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	11(4.1)	6(5.9)	
	합 계	268(100.0)	102(100.0)	

* $p < 0.05$.

<표 8> 드레스 셔츠의 소재 선호도

감각	평균	표준 편차	중간값 거리
거칠다-매끄럽다	5.08	1.34	+1.08
(사각)소리가 난다 -(사각)소리가 나지 않는다	4.95	1.58	+0.95
두껍다-얇다	4.84	1.35	+0.84
향기가 난다-향기가 나지 않는다	4.10	1.58	+0.10
광택이 있다-광택이 없다	4.01	1.44	+0.01
따뜻하다-차갑다	3.59	1.27	-0.01
신축성이 있다-신축성이 없다	3.40	1.44	-0.60
평평하다-오돌토돌하다	3.14	1.36	-0.86
촉촉하다-성글다	3.11	1.33	-0.89
보송보송하다 -보송보송하지 않다	2.90	1.41	-1.10
가볍다-무겁다	2.67	1.31	-1.33
통풍이 잘 된다 -통풍이 잘 안된다	2.65	1.33	-1.35
무드럽다-뻣뻣하다	2.65	1.52	-1.35
구김이 가지 않는다-구김이 간다	2.62	1.53	-1.38

〈표 9〉 결혼 여부와 연령에 따른 드레스 셔츠 소재에 대한 선호도

감각	결혼 여부			연령대			
	기혼 (평균)	미혼 (평균)	<i>t</i> 값	20대 (평균)	30대 (평균)	40대 (평균)	<i>F</i> 값
거칠다 - 매끄럽다	5.09	5.07	0.10	4.90	5.08	5.19	0.76
{(사)각}소리가 난다 - 소리가 나지 않는다	5.01	4.80	1.10	4.73	4.88	5.24	2.32
두껍다 - 얇다	4.88	4.73	0.98	4.67	4.92	4.72	1.21
향기가 난다 - 향기가 나지 않는다	4.10	4.10	0.01	4.02	4.08	4.20	0.27
광택이 있다 - 광택이 없다	4.10	3.76	2.04*	3.90	3.94	4.24	0.16
따뜻하다 - 차갑다	3.56	3.66	-0.69	3.78b	3.68b	3.28a	3.83*
신축성이 있다 - 신축성이 없다	3.39	3.42	-0.13	3.29ab	3.58b	3.04a	4.87**
평평하다 - 오돌토돌하다	3.16	3.06	0.66	3.14ab	3.00a	3.45b	3.67*
촉촉하다 - 성글다	3.09	3.17	-0.53	3.06	3.20	2.92	1.56
보송보송하다 - 보송보송하지 않다	2.89	2.91	-0.11	2.67	3.00	2.77	1.60
가볍다 - 무겁다	2.69	2.63	0.42	2.61	2.79	2.44	2.38
통풍이 잘 된다 - 통풍이 잘 안된다	2.65	2.63	0.13	2.47	2.73	2.55	1.10
부드럽다 - 뻣뻣하다	2.72	2.46	1.45	2.69	2.58	2.77	0.54
구김이 가지 않는다 - 구김이 간다	2.61	2.65	-0.18	2.58	2.58	2.73	0.31

* $p < .05$, ** $p < .01$.

ab : LSD 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은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함.

중간 값을 4로 볼 때 매끄러운 감각 쪽으로 1.08점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장인 남성이 드레스 셔츠의 소재에서 선호하는 감각은 구김이 가지 않고 부드럽고 통풍이 잘 되며 가볍고 보송보송하며 매끄러운 감각의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혼 여부 및 연령대와 소재 선호도

사무직 남성의 결혼 여부 및 연령대에 따른 드레스 셔츠 소재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표 9〉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드레스 셔츠 소재의 '광택이 있다-광택이 없다'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즉 미혼 남성은 기혼 남성에 비해 광택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감각별 선호

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따뜻하다-차갑다'($p < .05$), '평평하다-오돌토돌하다'($p < .05$), '신축성이 있다-없다'($p <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따뜻한 감각은 40대($M=3.28$)가 30대($M=3.68$)와 20대($M=3.78$)에 비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축성에 관련된 감각은 40대($M=3.04$)가 30대($M=3.58$)에 비해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평평한 감각은 30대($M=3.00$)가 40대($M=3.45$)에 비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편안함과 온열 쾌적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드레스 셔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선호하는 감각을 반영한 소재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V. 결 론

20~40대 남성을 대상으로 춘추용 드레스 셔츠의 소유와 착용 실태 및 드레스 셔츠 소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결혼 여부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드레스 셔츠의 소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 사람이 5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흰색보다는 유색의 드레스 셔츠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파란색 계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드레스 셔츠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0대와 30대 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갈색 계열과 회색 계열의 드레스 셔츠는 기혼 남성이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드레스 셔츠의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용도로는 직장근무용으로, 착용횟수로는 매일 입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넥타이는 항상 착용하는 사람이 많았고, 대다수가 드레스 셔츠 안에는 민소매 내의를, 드레스 셔츠 위에는 양복 상의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남성이 미혼 남성에 비해 직장 근무복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연령대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드레스 셔츠의 소재에 대한 감각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구김이 가지 않고 부드러우며 통풍이 잘 되며 가볍고 보송보송하며 매끄러운 감각의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성은 기혼 남성보다 광택이 있는 소재를 더 선호하였고, 40대 연령층은 따뜻한 감각과 신축성을 더 중요시하고 있으며,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평평한 감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연구 결과로부터 사무직 남성들에 있어서 드레스 셔츠는 화이트 드레스 셔츠라는 유니폼적인 틀에서 벗어나 남성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패션의 아이템으로써 중요시되고 있으며, 연령층에 따라 소유한 드레스 셔츠 색상과 선호하는 소재에 대한 감각은 다소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드레스 셔츠 업계에서는 이렇게 달라진 드레스 셔

츠에 대한 인식에 주안점을 두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개발, 특히 선호하는 감각을 반영한 차별화된 소재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정, 임숙자, 이숙희 (2004). “남성 직장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권 2호.
- 김의경, 이미식 (2003). “의류소재의 주관적인 태평가 용어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호.
- 김주희, 박옥련 (2005). “남성소비자의 패션의식에 따른 쇼핑행동연구: 구매행동, 쇼핑성향, 정보원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권 1호.
- 김지현, 홍금희 (2000). “남성 집단의 의복추구 혜택에 따른 소비성향과 정보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권 1호.
- 김찬주, 홍금희 (1996). “다상품군에서의 혁신성과 의견 선도력의 중복 성향: 남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0권 4호.
- 김희숙, 나미희 (2002). “대학생 셔츠용 소재에 대한 선호도 조사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권 3호.
- 김희숙, 나미희 (2002). “슬랙스용 소재에 대한 대학생의 선호도 조사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권 4호.
- 박진영, 손희순 (2001). “성인 남성의 신사복 구매행동과 맞춤새에 관한 조사 연구.” *복식문화연구* 9권 1호.
- 신수연, 김용덕 (2000). “20, 30대 성인남성의 캐주얼 의류 쇼핑 성향과 자기 이미지 및 점포 속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2호.
- 안춘순, 이승희, 양 윤, 임숙자, S. J. Lennon, S. M. Parker (2001). “한국과 미국의 여성정장용 소재에 대한 한미 소비자 선호도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권 1호.
- 오희선 (2000).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 유정하, 이순홍 (2004). “남성복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85년 이후 국내 남성복을 중심으로.” *복식* 29호.
- 이명희, 한화숙 (1996). “남성의 라이프 스타일과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에 관한 연구.” *복식* 28호.

- 이미식, 김은애, 김종준, 유효선 (2002). "춘추용 블리우스 소재의 태 언어 도출 및 평가." *한국섬유공학회지* 39권 1호.
- 임정은, 이명희 (1999). "직장남성의 성격특성과 의복 디자인 선호도와의 관계연구." *복식문화연구* 7권 5호.
- 정인희 (2001). "여자 대학생의 의복추구 이미지와 소재 선호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9권 4호.
- 정인희 (2002). "의류제품 구매시 소재의 영향과 소비자 선호구조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6권 1호.
- 최종명 (2005). "셔츠의 착용 실태와 소재에 대한 주관적 선호감각." *대한가정학회지* 43권 1호.
- 최혜옥, 손희순 (2000). "성인 남성의 슈트 구매실태 조사." *복식문화연구* 8권 3호.
- 현병희 (1999). "남성 로얄셔츠의 구매형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Horn, M. J., and L. M. Gurel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Eckman, M., M. L. Damhorst, and S. J. Kadolph (1990). Toward a Model of the in-Store Purchase Decision Process: Consumer Use of Criteria for Evaluation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8(2).